

mlb.com “이정후 타율, MLB 전체 톱10, NL에선 톱5에 들 것”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가 선정한 '2024년 당신을 놀라게 할 선수 10명'에 포함됐다.

지난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mlb.com은 전날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의 2024시즌 예상 성적을 활용해 '2024년 당신을 놀라게 할 선수 10명'을 뽑았다. 이정후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애블랜타 브레이브스), '괴수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 등과 빅리그 스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 이정후, 사진=X(SFGiants)

11홈런, 54타점, 78득점으로 예상했다. mlb.com은 이정후의 타율과 삼진율(삼진/타석 수), 조정 득점 창출력(Weighted Runs Created·wRC+)을 주목했다. 팬그래프닷컴이 예측한 이정후의 삼진율은 9.1%, wRC+는 116. 삼진율이 10% 미만인 선수는 뛰어난 선구안을 갖춘 타자로 평가된다. wRC+는 100이 평균. 이정후는 빅리그 평균 수준의 타자보다 16% 높은 득점 생산 능력을 보인다는 뜻이다.

mlb.com은 "팬그래프닷컴은 이정후가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톱 10, 내셔널리그에서는 5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삼진율은 7.1%의 루이스 아라에스(마이애미 말린스)에 이은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징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후는 올겨울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했다. 팬그래프닷컴은 2024년 이정후의 성적을 타율 0.291, 출루율 0.354, 장타율 0.431,

성전환 선수 우승에 “모든 선수 성별 검사”



▲ 해일리 데이비드슨, 사진=X(toddstames)

성전환한 선수가 우승한 미국 여자 골프 미니투어가 앞으로 모든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성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XXT 여자 프로 골프 투어는 이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따라 테스트스테론 검사를 추가해 출전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트스테론 검사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NXXT 여자 프로 골프 투어가 테스트스테론 검사를 도입한 것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NXXT 클래식에서 성전환 선수 해일리 데이비드슨이 우승한 뒤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슨은 남자 선수로 월빙턴대, 크리스토퍼 뉴포트대 대학 골프팀에서 뛰었고, 2015년 US오픈 남자 대회 지역 예선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지난 2021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남자 체격과 힘을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데이비드슨은 "호르몬 치료를 받은 지 9년이나 됐고 3년 전에 수술까지 받았다. 남자였을 때 300야드를 치던 드라이버 샷이 지금은 고작 250야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혈액은 대개 골프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NBA G리그 아이오와, 한글 유니폼 입고 경기

미국프로농구(NBA) 하부리그인 G리그 경기에서 한글 유니폼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웰스파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NBA G리그 아이오와 울브스와 리오그란데 벨리 바이퍼스의 경기에서 홈팀 아이오와는 유니폼 상의에 '늑대'라는 한글을 새기고 나왔다. 아이오와는 NBA 팀인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하부리그 팀으로 구단 명칭은 '울브스'(Wolves)이다.



▲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 중인 아이오와 울브스의 조시 마노트 선수, 사진=X(iawolves)

랑 랜스 스티븐슨도 뛰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한글 유니폼이 등장한 것은 아이오와가 이번 시즌 여섯 차례의 정규리그 특별 유니폼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아이오와는 아시아 태평양계(AAPI) 미국인들을 위한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그중 하나로 한글 유니폼을 채택했다. 아이오와 구단에 따르면 이 한글 유니폼은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인 해나성 씨가 디자인했다.

아이오와 구단은 이 유니폼을 팬 경매에 부쳐 수익금을 지역 아시아 관련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이오와에는 NBA 미네소타에서도 활약하는 레너드 밀러, 조시 마이넷, 루카 가르자 등이 속해 있으며 NBA 정규리그에서 통산 554경기에 출전한 33세 베테

아이오와는 이날 경기에서는 120-124로 분패했다.

9	1		5		2	
			4	2		3
	2		1	6		
		9		4		5
6				5		7
	8	7		3	9	
					6	5
2			6	8		
		1			8	2

1	암	각	2	화		3	불	쏘	시	4	개		
	행			풀			가				활		
	어		5	이	6	등	분		7	기	지		
8	사	9	방			잔		10	치	마			
			11	파	병		12	풍		13	전	14	업
15	금	제				16	동	년	17	배			데
	봉						치			터			이
18	어	두	일	미					19	리	포	트	